

여성적 매조키즘은 존재하는가?

김 예 숙

인천 여성의 전화 회장

여기에서는 여성적 매조키즘이라고 부를 것이 있느냐를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Freud의 이론을 보면 처음에는 여아의 본능도 본래는 새디스틱한데 아버지에 대한 근친상간적 사랑에 대한 죄책감으로 매조키스틱 해진다고 설명하였고 후에는 여성이 매조키스틱한 성향을 타고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Honey는 여성에게 매조키스틱해질 수 있는 해부학적 조건이 있지만 경험보다는 문화적 해석에 의해 여성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였다. Honey의 비판의 약점은 충분히 정신분석적이지 않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Benjamin은 대상관계 이론인 Mahler의 분리-개체화 과정 이론을 수용하여 매조키즘을 정신분석적으로 설명하는 시도를 하였다. 유아가 자신이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자각하는 래프러쉬망 단계에서, 최초의 대상인 어머니와 분리되어야 하는 여아가 개체화를 위하여 새로이 동일시할 대상을 찾지 못하여 자아이상의 자리에 남성을 놓고 자신을 객체화시킴으로서 매조키스틱해진다는 것이다. Benjamin의 분석으로 여성적 매조키즘은 해부학적인 이유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매조키즘을 형성시키는 가부장제 하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로는 존재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고 하겠다.

I. 들어가는 말

성인여성들을 상담을 하다보니, 그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음을 알게되었다. 즉 자아가 약하여 자기중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한다는 점, 어려서부터 내면화된 기존의 통념의 지배를 대단히 많이 받으면서 살아오고 있다는 점, 자신의 욕구를 억압해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점, 반면에 타인을 돌보고자 하는 점들이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그 여성들이 자기파괴의 상태에 이르러서도 자기를 돌보는 방향으로 변화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 여성의 전화에서 하고 있는 알콜중독자의 가족(아내와 자녀)을 위한 상담 한 사례 중 하나를 보면 결혼하여 17년 동안 알콜중독자인 남편을 대신하여 생계비를 벌면서도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의 폭력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으로 시달린 아내가 있다. 그녀는 보통의 가정의 아내라면 담당하지 않아도 되는 가정의 의무를 떠맡은 채, 그리고 다른 가정의 아내가 당하지 않는 심한 폭력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생존이나 복지를 위하여 남편을 떠나겠다는 생각을 못해온 것이다. 구타를 당하는 아내들 -1983년 한국 여성의 전화 설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

의 42.2%가 구타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편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보통 경제적 무능력과 자녀 때문인데, 위의 사례의 여성은 경제적 능력이 있고 자녀도 아버지를 떠나기를 원하는데도 떠날 생각을 못하는 것이다. 심지어 그녀의 남편을 치료한 정신과 의사가 남편은 구제불능이니 이혼하라고 이혼을 권할 정도였는데도 그녀는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Nietzsche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그대의 생각과 감정의 배후에는 하나의 강력한 지배자, 알 수 없는 현자가 있다. --- 그 이름은 자기이다. 그대의 육체 속에는 자기가 살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란 그대의 육체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생계를 위한 노동으로 지친 몸이, 매맞아 아픈 몸이 ‘이건 사람의 삶이 아니야’라고 말을 할텐데 왜 그녀는 몸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일까? 이것은 가부장제에 의한 피해를 다루는 여성상담가를 위해 설명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발표자는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여성은 매조키스틱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전통적인 정신분석의 명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정신분석이 상담이론 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Freud가 여성은 수수께끼같다고 하면서도 여성심리에 대한 담론을 창출하여 영향을 많이 끼쳐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명제는 현시점에서도 “여성들이 구타당하며 사는 이유는 매를 맞으며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다”는 주장을 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을 분석하고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은 정신분석에서 배워오되, 전통적인 정신분석이 포함하고 있는 남성 중심주의적 가정들을 슈아내는 노력을 해야하는데 이 논문이 그런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다.

II. 정신분석이론

1. Sigmund Freud

매조키즘에 관한 Freud의 주요논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1919년에 쓴 “한 아이가 맞고 있다 A Child is Being Beaten”로, Freud는 여아의 본능도 본래는 남아와 마찬가지로 세디스틱한데, 아버지에 대한 근친상간적 사랑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매조키스틱해지고 그래서 여성적 매조키즘이 생긴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매조키즘을 이차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1924년에 쓴 또 하나의 논문인 “매조키즘의 경제적 문제 The Economic Problem of Masochism”에서는 매조키즘을 일차적인 현상으로 보고 그것을 세 종류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성에발생적(erotogenic) 매조키즘으로 고통에서 쾌락을 느끼는 경우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고통과 함께 쾌락을 느끼는 경우이다. Sade가 1785년에 쓴 소설 『소돔의 120일』을 보면 발기하고 사정하기 위하여 매춘여성에게 때려줄 것을 요구하는 남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남자는 성에발생적 매조키즘의 극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둘째는 여성적 매조키즘으로 여자들처럼 무력한 존재로 -여자들을 거세당하고 성교당하는 존재 선택의 여지없이 아이나 낳는 존재로 여기면서- 취급당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남성환자들에게서 이것을 관찰할 수 있었기에 Freud는 여성적 매조키즘이 가장 관찰하기 쉽고 설명하는데 문제없는 경우라 보았는데, 여성심리를 연구하는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닐 수 없다. 셋째는 도덕적 매조키즘으로 무의식에 있는 죄책감 때문에 벌받을 필요를 느끼는 경우여서 이 때 중요한 것은 괴로움 그 자체이다. 순교당하기를 원하는 종교인은 도덕적 매조키즘의 극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Freud는 성애발생적 매조키즘이 모든 매조키즘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논의를 여성적 매조키즘에 한정시키기로 하였다.

Freud는 여성적 매조키즘을 설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였지만, 새디스틱한 여아의 본능이 매조키스틱한 것으로 바뀌는 것을 좀 더 강력하게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다. Freud가 여성의 심리에 대해 쓴 논문들 -“성의 해부학적 차이에 의한 심리적 결과 Some Psychical Consequences of the Anatomical Distinction between the Sexes”(1925), “여성의 성성 Female Sexuality”(1931), “여성성 Femininity”(1933)- 에서 제기하는 질문은 어떻게 여아가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인 어머니를 버리고 아버지를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다. Freud에게는 모녀간의 근원적 동성애가 이성애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이 몹시 이상했던지 그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이유를 찾아내었다. 어머니가 거세된 성기를 주었기 때문이라는 악명이 높은 이유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가 젖을 적게 주었기 때문이라든가, 어머니가 아이를 만져 성적 자극을 주고는 자위를 금지시키기 때문이라든가, 어머니가 동생에게 열중하기 때문이라든가,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게 되는 양가감정 때문이라든가 하는 모든 이유를 찾아 열거하였던 것이다.

2. Karen Honey

그러나 Freud 시대에 속한 모든 정신분석가들이 Freud의 의견에 동의했던 것은 아니다. 신Freud학파에 속하는 Honey는 1935년에 쓴 “여성적 매조키즘의 문제”라는 논문에서 “여성은 매조키스틱하다”라는 명제를 비판한다. 매조키스틱한 남성환자들이 여성을 -괴로워하는 - 모방하는 증상을 보이는 것을 관찰하고는

의사들이 확대 해석을 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의사인 Kraft-Ebbing은 Masoch라는 작가의 이름으로부터 Masochism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인데 매조키즘이란 여성적 특성이 과도하게 성장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았고, 위에서 보았듯이 프로이트도 매조키즘과 여성성을 연결시켰다는 것이다. 네일로 프라는 러시아 산부인과 의사는 여성들이 겪는 처녀막 상실, 월경, 출산 등의 괴로움에 경탄하며 그 일들을 ‘여성의 피비린내나는 비극’이라고 시적으로 표현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Honey는 매조키즘이 여성의 해부학적인 운명이라고 보는 일부 정신분석가의 견해를 비판한다. 여성들이 성장의 과정으로 겪는 일일 뿐인데 그 생리적인 사건에 지나치게 직접적인 심리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Honey는 해부학적인 조건이 매조키즘을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매조키즘을 키우는 바탕이 되어줄 수는 있다고 한다. 여성의 육체가 남성보다 약하다는 점, 여성에게는 강간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여성은 월경과 처녀막 상실과 출산을 경험한다는 점 그리고 성교에서의 남녀의 차이가 있다는 점 -여성은 관통당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 들이 그것인데 경험 그 자체보다는 경험을 해석하는 문화적 요인들이 더 중요한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문화적 요인을 강조하는 근거로 Honey는 첫째 정신분석 후 여성환자에게서 매조키즘이 사라진다는 점과 매조키스틱하지 않은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남편이 때리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던 러시아의 농촌 아낙이 이제는 그런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소련의 여자로 변했다 사실을 들고 있다.

3. Jessica Benjamin

현대의 페미니스트에 속하는 Benjamin은 매

조키즘을 여성의 운명으로 보는 것을 거부하는 Honey의 맥을 잇고 있을 뿐만 아니라 Honey보다 더 정신분석적이기도 하다는 미덕을 지니고 있다. 선배적인 Honey는 매조키스틱하게 되는 여성의 심리내적 과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남근의 결핍을 발견한 여아가 극도의 정신적 고통 속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게 되고 그 후 성적 욕망을 매조키스틱하게 추구하게 된다는 Sandor Rado(1933)의 정신분석 이론을 불충분한 설명이라고 비판했을 뿐이지 Honey는 자신의 이론을 정립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Benjamin은 1986년에 쓴 “욕망의 소외: 여성의 매조키즘과 이상적 사랑 The Alienation of Desire: Women’s Masochism and Ideal Love”이라는 논문에서 정신분석으로부터 발전한 세가지 이론 중 하나인 대상관계이론에 근거를 두고 (나머지 두 이론은 자아심리학과 자기심리학이다) 여성이 매조키즘을 발달시키는 심리내적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해부학적 사실 때문인가 아니라 대상관계 -여기서의 ‘대상’이란 사람이다- 속에서 필요에 의해 매조키즘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대상관계이론을 잠깐 살펴보면 아이는 관계에 관심이 없는 자폐단계와 어머니를 자신과 분리된 존재로 자각하지 못하는 공생단계를 거쳐 분리-개체화 단계로 들어간다. 분리-개체화 단계의 하부단계 네가지 중 세 번째인 래프러쉬망단계에서 (하부 네 단계란 분리단계, 세계탐험단계, 래프러쉬망 -화해라는 뜻- 단계, 개체성의 견고화단계이다) 아이는 분리와 성동일시를 시작하는데,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분리된 존재임을 날카롭게 느끼고 아버지의 차이를 인지하게 된다. 이 때 어머니는 일차적 동일시 대상이고 아버지는 그 어머니로부터 분리해내는 힘을 가진 존재이다. 즉 아버지는 母子の 이원성을 깨는 사회적 존재이며 분리된

자아의 이상이며 욕망의 주체에 대한 모델이 된다.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래프러쉬망 단계에서 성차가 생기고 만다. 소년은 분리-개체화를 성정체성의 틀 안에서 쉽게 해결한다. 어머니와의 분리는 남성의 성정체성의 핵심인데, 소년은 분리된 자아의 이상인 아버지와 동일시함으로써 분리된 개체성과 남성의 성정체성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소녀는 그렇게 깔끔하게 분리-개체화를 이룰 수 없다. 소녀는 자신과 같은 성을 가진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또 자신과 다른 성을 가진 아버지와 동일시하며 분리된 자아를 성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녀는 분리된 자아의 이상의 자리에 타자(남성)를 놓기 쉽다. 문제의 시작은 최초의 동일시 대상인 어머니가 성적 주체가 아니고 자신의 욕망이 없고 아이의 이익에 헌신하는 존재여서, 어머니와 동일시하면서 능동적인 성적 수행자인 여성이라는 존재감을 창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의 문제는 소녀가 욕망의 주체에 대한 모델이 되어주는 아버지와 동일시를 하여 능동적인 수행자가 되려고하지만 동일시하지 못할 때, 소녀는 성적 수행성을 성취하지 못하고 수행자의 자리에 타자(남성)를 놓는 매조키즘으로 간다는 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매조키즘의 근거를 해부학에서 찾지 않을 때 매조키즘의 의미는 더 이상 ‘고통 속에서의 쾌락’이 아니라는 점이다. 매조키즘에 대한 현대적 담론은 일차적 동일시의 대상과 분리하지 못하기에 개체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 자신의 주체를 확립시키지 못하는 대신에 대상을 이상화시킨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된 것이다. 즉 매조키즘의 핵심은 고통이 아니라 복종이 되는 것인데, 복종을 즐긴다는 것은 통제와 안전의 조건으로 보이는 것에 자아를 맡기고 타자의 통제를 느

기면서 자신의 깊은 자아를 찾으려하고 타인의 지배에 의해 자신의 욕망을 배출하는 것을 즐긴다는 것이다. 이 매조키즘은 Sartre가 『존재의 무』에서 내린 정의, 즉 “매조키즘은 타인에 의해서 자기의 주관성을 재동화하여 받음으로써, 주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한 하나의 끊임없는 노력이다”(119쪽)에 해당되는 것이다.

Freud를 비롯한 몇몇 정신분석가들은 고통 속에서 쾌락을 느끼는 여성들을 관찰해왔다. 그러나 진통제로 월경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제왕절개수술로 출산의 고통을 회피하는 현대 여성들은 그 반례가 되어주고 있다. 그렇다고 매조키스틱한 여성이 사라졌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 현대의 페미니스트들은 복종 속에서 쾌락을 느끼는 여성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폴린 레이쥬가 1954년에 쓴 소설 『O의 이야기』(옮긴이는 ‘아름다운 매조키즘의 연가’라는 뜻모를 부제를 달아놓고 있다)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Benjamin은 1983년에 쓴 “주인과 노예: 에로틱 지배의 환상, Master and Slave: The Fantasy of Erotic Domination”이라는 논문에서 주인공 O와 그의 남자친구 르네의 관계를 Hegel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진사라는 직업 가진 O라는 여성은 르네로 대표되는 남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한다. O가 복종을 하는 이유는 강자에 의해 인정받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배자의 힘이 자신을 세계 짓눌러올 때 자유로워진다고 느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녀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곳에서 끝내 자유를 얻었다. 그 자유는 완전한 복종을 통해 얻어지게 되었다.” 그러한 O를 가부장적 문화에 의해 세뇌당하고 피해자가 된 여자로서만 단순하게 보면 그녀가 느끼는 심리적 만족을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어머니로부터 적절한 분리를 하지 못해 세상과 주체적으로 관계하는 개체성을 스스로 성취하지

못했을 경우, 자신을 개체로 느끼게끔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감각을 압박해오는 타자의 지배력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다.

Benjamin은 여성에게 나타나는 매조키즘을 자아병리라고 본다. 능동적 욕망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어머니와 동일시해야하고 또 분리해야하고, 그리고 異性인 아버지와의 동일시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에서 여성이 겪기 쉬운 병리하는 것이다. 벤자민은 이 병리의 원인을 성별 분업을 강요하는 현행 이성의 구조로 본다. 그 구조 속에서 아버지는 멋진 바깥세계를 공급하고 모자의 이원관계에 출구를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공생관계를 공급하고 분리당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이 매조키즘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며 성장하려면 가부장적 성별 분업이 없어야 하며 어머니가 능동적인 수행자로 변화해야 한다고 Benjamin은 진단하는 것이다.

III. 맺는 말

Benjamin의 분석을 빌어 우리는 여성적 매조키즘은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단지 해부학적으로 여자라는 이유로 매조키즘을 가지게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여성적 매조키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한 여성이 성장해가면서 매조키즘을 가지기 쉬운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적 매조키즘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Benjamin의 분석에서 중요한 점은 현재 존재하는 여성적 매조키즘란 대상관계의 변화와 함께 사라지리라는 희망을 준다는 점이다. 발표자가 Benjamin의 분석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희망을 준다는 낭만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다. 2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발표자가 경험한 여성상답은

여성적 매조키즘을 대상관계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여성내담자의 매조키즘은 어찌할 것인가? 부모와의 대상관계가 이미 잘못 형성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정신분석의 치료가 보여주듯이 무의식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여성적 매조키즘을 새롭게 정의하고 다루는 여성상담자의 역할이라고 하겠다. 많은 상담자가 그렇듯이 여성상담가도 내담자에게 성장의 촉진자의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데, 기존의 가족구조로 돌아가서가 아니라 여성운동에서 말하는 '자매애'라는 사회적인 의미에서 유대개념을 창출하면서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의 '자매애'란 여자들끼리의 유대만을 의미하기 보다는 가부장제에 의한 피해를 공감하고 창조적으로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유대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애정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발표자는 아내의 의도로 고통받는 남성내담자를 상담한 적이 있는데, 아내의 의도를 수용하려고 무척 애쓰는 그 내담자를 도와주며 상담자가 느낀 유대감을 '자매애'라고 해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앞서 이야기한 사례의 주인공이 남편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남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할 자기가 없어서, 사랑할 자기를 만든 적이 없어서일 것이다. 해부학적으로 매조키스틱해서가 아니라 매조키스틱해지는 심리내적 과정을 밟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상담가는 그 과정을 취소시키는 작업을 해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발표자가 여성상담가로서의 짧은 경험으로 정리한 것은, 여성상담가는 여성적 매조키즘을 보이는 내담자에게 동일시할 대상의 역할과 분리된 자아의 모델 역할을 동시에 감당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친밀한 존재와 주체적

존재 양자를 통합된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 가족제도 속의 어머니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을 합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성상담가와 내담자의 관계는 가족 내의 대상관계가 아니기에, 여성상담가는 새로운 대상관계를 -사회적이면서도 가족과도 같은 영향력을 가지는-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전통적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대상관계는 아동기의 가족관계에 국한된다. 그러나 거기서 다루어지지 않는 사회적 대상관계의 영향력을 믿지 않는다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상담은 자신의 자리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가부장제의 극복을 지향하는 여성상담은 가부장제 하에서 피해받은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보여 내담자로 하여금 동일시하게 하면서, 그것을 어느 정도 극복해내었다는 차이점을 보여 내담자로 하여금 변화의 가능성을 보게 해야 하는 것이다. 여성상담가가 자매애로 여성내담자와 새로운 대상관계를 가질 때 그들은 혐오하여 외면하고 싶던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여성적 매조키즘의 극복 즉 여성의 주체성 문제는 1949년 Simone de Beauvoir의 『제2의 성』에서 이미 분석되어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여성심리연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란 1970년대에 이르러 이 문제가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여성상담의 현장에서 다루어지게 되었으며, 이제 여성상담의 연륜을 쌓아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적 매조키즘을 취소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이론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모든 여성문제가 그렇듯이 여성적 매조키즘도 가족내의 대상관계에 의해서만 생긴다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분석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지만 여성을 때

조키스틱하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를 이해를 해야할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는 앞의 내담자를 착하고 덕스럽다고 칭찬하고 있다. 여성적 매조키즘을 키우는 사회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Nietzsche가 말한대로 여성의 생각과 감정의 배후에도 ‘알 수 없는 현자’가 있다. 즉 ‘자기’가 있다. 다만 가부장적 사회에는 여성의 그 힘을 숨게 만드는 가학적인 세력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여성상담가인 Miriam Greenspan이 말한대로 우리는 여성 속에 숨어 있는 힘을 찾아내는 길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니체 (1969),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강두식(역), 서울: 휘문출판사

드 보바르, 시몬느, 제2의 성, 서울: 을유문화사, 1986.

레아쥬, 폴린 (1992), O의 이야기, 이정윤(역), 서울: 타임기획

샤드 (1990), 소돔의 120일, 서울: 새터

샤르트르, 장 폴 (1976), 존재와 무, 손우성(역), 서울: 삼성출판사

호니, 카렌 (1982), 여성심리학, 이동원, 이근후 (역), 서울: 이대출판부.

Benjamin, Jessica (1990), "The Alienation of Desire: Women's Masochism and Ideal Love", in ed. Zanardi, Claudia, Essential Papers on the Psychology of Women,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Benjamin, Jessica (1983), "Master and Slave: The Fantasy of Erotic Domination", in ed. Snitow, Ann & Stansell, Christine & Thompson, Sharon, Powers of Desire:

The Politics of Sexuality, NY: Monthly Review Press.

Freud, S (1963), A Child is Being Beaten, Sexuality and the Psychology of Love, NY: Collier Books.

Freud, S (1963), Som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the Anatomical Distinction Between the Sexes, Sexuality and the Psychology of Love, NY: Collier Books.

Freud, S (1961), The Economic Problem of Masochism,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19., London: Hogarth Press.

Freud, S (1963), Female Sexuality, Sexuality and the Psychology of Love, NY: Collier Books.

Freud, S (1965) Femininity, New 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NY: W. W. Norton & Company Inc.

Mahler, Margaret, Pine, Fred & Bergman, Anni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NY: Basic Books.